

10/9(토) 욥기 묵상 3

욥기 1:13-22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이후에 벌어진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 그가 말한대로 한꺼번에 일어나게 됩니다(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하지 않겠나이까”**). 그 결과 욥은 하루 아침에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욥의 재난

본문 13절은 욥의 식구들이 어느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던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13절,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만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욥의 자녀들이 모두 그 만아들의 집에 모였다는 것은 특별한 일로서 대식구가 함께 모여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은 갑자기 욥의 시험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는 13절과 14절의 내용을 대치시킴으로써 상황의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욥은 같은 날에 순차적으로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로, 욥의 종들이 소 떼를 초장에서 먹고 있을 때 스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소들을 강제로 빼앗고 종들까지 죽인 것입니다(14-15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서 스바 사람들은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학자들은 이들이 훗날 아라비아반도 최남단에 정착한 족속이고 당시에 우스 땅이 있는 에돔의 지역을 배회하던 족속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둘째로,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16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서 보면 첫번째 재앙에 대한 보고가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자연재해를 통한 욥은 재앙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갈대아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욥의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이게 됩니다(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세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초기 바벨론의 선조들로서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주전 1000년대부터 근동 지방에 모습을 드러냈고 이 근동 지방을 떠돌아 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욥의 재산들 중에서 낙타는 가장 값이 비싼 짐승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욥의 고난이 점차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독자들은 느끼게 됩니다. 넷째로,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서 만아들의 집에 모여 잔치하던 욥의 모든 자녀들 위로 집이 무너지면서 그들이 모두 한 날 한 시에 다같이 죽게 됩니다(18-19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만아들의 지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지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여기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모든 재난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것이고 사람에게 의한 재난이 두 건(첫번째, 세번째)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한 재난이 두 건(두번째, 네번째)이나 일어나게 됩니다. 하루 아침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풍지박산이 나버린 욥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20절상, **“욥이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욥은 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른 채 갑작스러운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도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여러가지 고난과 재앙을 겪는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욥

욥이 가진 모든 소유물을 잃게 되면 그가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욱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사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게 됩니다. 한편 욥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20절하,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리고 욥은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분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21-22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기의 모든 소유물이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학 2:8,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욥은 비록 재앙으로 인해 깊이 슬퍼하게 되었지만 그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고 그의 행동으로도 주를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적용해 보게 됩니다. 첫째로, 고난은 의인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묵상 첫번째 시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욥은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보다도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람을 시험하지는 않으시지만 그는 욥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궁극적으로 허용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죄와 연결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 여러가지 고난으로 인해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그 고난의 이유를 분석하기 보다는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약 5:13-14,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둘째로, 욥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은 흠에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고 또 우리의 소유물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도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더이상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족은 이 땅에서만 우리에게 잠시 허락하신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하늘에서도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욥처럼 언젠가는 모두가 가진 것을 하나 둘씩 떠나 보내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지막에는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채 맨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타이틀과 소유보다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인내의 소망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탐심과 소유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또 이 생을 마감할 때 더 큰 아픔과 상실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소유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더 부요한 삶을 저축하시고, 나누시고, 섬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2. 아프간 난민을 위한 기도:**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으로 기록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끝난 후 유입된 난민을 돕기 위해 개신교, 가톨릭, 유대교, 이슬람교 등 미국의 주요 종교기관이 연합하여, 이미 들어온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필요와 적응 및 재정착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을 함께하고 있다. 기독교 인도주의 단체로서 위기와 재난에 처한 이들을 위해 국제적으로 사역하는 World Relief 역시, 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들의 사역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새로운 사회에 잘 적응하며, 점차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하자.
-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교회학교를 위해 중보합니다. 오늘은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이창배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